

『傷寒論』 辨病診斷體系에 근거하여 回逆湯 투여 후 호전된 한포진 1례

하현이^{1*} · 이성준²

서울 강서구 생동한의원^{1*}
 서울 강남구 압구정정인한의원²

A Case Report of Dyshidrotic Eczema treated by Hoiyeok-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Hyun-Yee Ha^{1*} · Sung-Jun Lee²

Saeng-Dong Korean medical clinic, 34, 27-Gagil, Hwagok-ro Gangseo-gu, Seoul, Korea^{1*}
 Jung-In Korean medical clinic, A-404 Rodeostar, 5-6, 46-gil, Gangnam-gu, Seoul, Korea²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improvement of patient with Dyshidrotic Eczema treated by herbal medication based on *Shanghanlun*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Methods : According to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the patient diagnosed as ‘Jueyinbing Huoluan’ number 388 provision and took herbal medication Hoiyeok-tang for 28days. The changing symptom progress of Dyshidrotic Eczema was evaluated by DLQI(Dermatology Life Quality Index) and VAS(Visual Analogue Scale).

Results : The DLQI score changed 24 to 0 and VAS changed 8 to 0.

Conclusions : Patient who suffered from Dyshidrotic Eczema caused by concentrating on sophisticated work using her eyes and hands was treated by Hoiyeok-tang in *Shanghanlun*. Skin disease on hands or feet can be closely related to conception of 手足厥 in *Shanghanlun*.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validate the conception of 手足厥 and the effects of Hoiyeok-tang.

Key words : Hoiyeok-tang, Dyshidrotic Eczema, *Shanghanlun*,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Herbal medicine

* Corresponding author : Ha Hyunye. Saeng-Dong Korean medical clinic, 34, 27-Gagil, Hwagok-ro Gangseo-gu, Seoul, Korea. E-mail : hhyee0819@gmail.com.

· Received : 2019/12/10 · Revised : 2019/12/31 · Accepted : 2019/12/31

서 론

한포진은 손가락, 손바닥, 발바닥 부위에 수포를 형성하는 재발성 습진 피부질환이다¹⁾. 정서적, 신체적 스트레스, 아토피 피부염 과거력, 금속 등 접촉에 의해 발병한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뚜렷한 원인은 밝혀진 바가 없다²⁾. 병변이 주로 땀의 발생 부위에 형성되므로 한포진으로 명명되었으나 한관(sweat duct)은 발병기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³⁾.

서양 의학적 치료로는 증상에 따라 부신 피질호르몬제(corticosteroid) 투여, 수렴제(zinc), 항소양제 도포 등이 있다⁴⁾. 한포진은 만성 재발성 질환으로 악화인자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방법이 현재로는 최선의 예방법이다.

한의학에서 한포진은 『醫宗金鑑·外科心法要訣足部』⁵⁾에서 “田螺胞，在足掌生，裏濕外寒蒸鬱成，豆粒黃胞間脹硬，破津臭水腫爛疼。”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濕熱纏積，陰虛內熱，心脾兩虛，血熱등으로 변증하여 清熱利濕解毒，健脾除濕利水，滋陰清熱，補益心脾，清熱涼血 등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최근 한포진에 대하여 한의학적 치료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인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포진의 한의학적 연구동향에서 분석된 보고⁶⁾에 따르면 2000년도 이후 국내학술지에 등재된 한포진 연구는 증례 연구가 주를 이루며 12건의 증례연구에서 활용된 치료방법으로는 한약처방, 침 치료, 외용제 도포 등을 병행하는 방식이었

다. 이 중에서 단일처방을 활용한 치험례는 2건으로 그 중 1건은 외용제로 사용⁷⁾되었으므로 단 1건만이 단일처방 한약을 복용하고 치료 효과를 관찰한 증례⁴⁾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약처방만으로 치료방법을 제한하여 한포진에 대한 단일처방의 효과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하였다.

최근 학계에는 『傷寒論』 辨病診斷體系의 진단방법⁸⁾을 활용한 다양한 질환증례 보고⁹⁻¹¹⁾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증례에서는 손 부위 한포진 환자를 『傷寒論』 辨病診斷體系에 근거하여 388번 조문으로 진단하고 回逆湯을 투여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증례 연구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며, 저자의 ‘연구윤리서약서’, 환자의 ‘연구자료 활용 동의서’등 서면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1. 환자 기본정보

여 / 37세 / 162cm / 52kg / 기혼 / 주부

2. 주소증(C/C) : 손 부위 한포진

3. 발병일(O/S) : 2014년

4. 현병력(P/I) :

1) 손바닥 손가락 지문 부위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점차 건조해지면서 갈라짐

1-2지 사이 연필 잡는 부위에 병변 발생. 수포가 피부 속에 생기면서 가려움증이 시작됨,

점점 피부 겉이 건조해져 각질이 생기고 갈라지며 피와 진물 나옴

2) 여름철에 심해지는 패턴

5. 가족력 : 별무

6. 과거력

1) 눈 주위 아토피 : 20대 초 대학교 시절

2) 전정신경염 : 2018년 말경 감기 말미에 서있지도 못할 만큼 어지럽고 토하는 증상

7. 현재 복용중인 약물 : 없음

8. 주요 임상증상

1) 食慾 : 스트레스 받으면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살이 쪼뻛. 근래 공부 시작하면서 살이 10kg가량 빠짐

2) 消化 : 스트레스 받으면 한 번씩 크게 탈이 남

3) 口部 : 양호

4) 汗出 : 육아로 집안일을 많이 하였음. 땀이 많지는 않음

5) 大便 : 1일 1회. 어린 시절부터 무른 변이었고 스트레스 받을 당시 대부분 설사 경향

6) 小便 : 8회/일, 양호

7) 寒熱 : 추위를 많이 타는 편. 손이 항상 차다.

8) 頭面 : 감기 말미에 발생하는 토 증세와 어지럼증. 전정신경염 기왕력

9) 呼吸 : 감기에 쉽게 걸림

10) 胸部 : 양호

11) 腹部 : 양호

12) 睡眠 : 양호

13) 身體 : 손 부위 한포진. 발 부위에도 가끔 발생

14) 性慾 : 양호

9. 진단 및 평가 방법

1) 辨病診斷 및 條文의 선정(Table 1 참고)

(1) 臨床所見

① 수포가 피부 속에 생기면서 가려움증이 시작됨. 점점 피부 겉이 건조해져 각질이 생기고 갈라지며 피와 진물 나옴

② 악화요인 : 공부를 시작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남. 육아 및 가사 일에서의 손 사용시간 증가

③ 완화요인 : 양가 부모와의 분리, 심리적 압박감 해소, 음식 조절

(2) 辨病診斷 : 辨厥陰病 霍亂

① 厥陰之爲病 氣上撞心, 心中疼熱, 飢而不欲食, 食則吐, 下之利不止

한포진 유발 시점에 양가 부모와의 불화로 답답하고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공부에 집중하면서부터 식량이 줄면서 체중이 10kg 가량 감소하였으며,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설사 경향의 대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② 霍亂

시험 준비를 시작하며 앉아서 공부, 강의 시청 등 눈으로 집중을 요하는 자세가 만들어 지고, 잦은 감기, 축농증, 전정신경염으로 인한 어지럼증 등 두면부 증상들이 발생하였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하여 厥陰病 霍亂으로 변병(Table 1)하였다.

(3) 條文 診斷 : ㉔388. 吐利汗出, 發熱惡寒, 四肢拘急, 手足厥冷者, 回逆湯主之.

① 吐利 : 컨디션 저하 시 심해지는 만성적인 소화 불량 및 설사 형태의 변 상태.

② 汗出 : 욕아, 집안 일로 손을 주로 쓰는 행위, 과외와 공부의 병행으로 움직임이 늘어난 정황.

③ 四肢拘急 : 미래에 대한 불안함, 양가 부모로부터 느껴온 심리적 압박감은 조급함의 심리에 기인하며, 이것이 팔다리를 조급하게 쓰는 행위로 이어짐.

④ 發熱惡寒 : 주소증 심화 과정에서 함께 발생한 잦은 감기와 축농증, 전정신경염 등 寒熱로 대표되는 감기와 유사한 면역계 질환.

⑤ 手足厥冷 : 공부 시 연필을 잡는 손 부위에 발생한 피부병변, 공부, 집안일 등 손의 집중을 요하는 행위로 발생하는 문제. 항상 손이 차고, 차가움에 손이 노출되는 환경.

위 진단내용을 근거로 하여 厥陰病 霍亂의 388번 回逆湯 조문을 진단(Table 1)하였다.

Table 1. The main diagnostic points of this case

Terminology	Expression in the provision of <i>Shanghanlun</i>	Patient Information/ interpretation by chinese character
Jueyinbing	厥陰病	concentrate on something with his/her eyes and hands
cholera	霍亂	Symptoms related to eye problems
hands and feet	手足	Chief Complaints occurred on hands

* Terminology using in this category was consulted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2) 치료 평가 도구

한포진의 주 증상인 소양감은 환자마다 정도의 차이를 보이므로 환자의 자각증상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 유무가 결정된다. 한포진의 주관적 평가지표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와 VAS(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⁶⁾, 본 연

구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질적 평가가 가능한 피부질환으로 인한 삶의 질 평가 척도인 DLQI(Dermatology Life Quality Index)¹²⁾와 VAS(visual Analogue Scale)를 사용하였다. 피부 증상의 주관적 치료평가도구인 DLQI는 기분, 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생활, 의복, 일과 학업, 대인관계, 성관계, 치료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으로 각 항목 별로 ‘불편함이 전혀 없음’의 0점에서 ‘아주 많음’의 3점, 총 30점의 점수로 측정하였다. (Appendix 1 참고).

이와 함께 소양감, 갈라짐 등으로 인해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를 VAS를 이용하여 ‘불편함이 전혀 없는 상태’ 0점에서 ‘가장 심한 불편함의 상태’ 10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하였다.

10. 치료적 중재

1) 한약 투여

回逆湯을 2019년 5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28일 분을 투약하였으며, 1일 2회, 1회 120cc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탕전 약재 구성과 용량은 아래 Table 2와 같다.

Table 2. Composition and administration of Hoiyeok-tang¹³⁾

Herbal name	Scientific name	Daily dose(g)
甘草	Glycyrrhiza Radix et Rhizoma	6
乾薑	Zingiberis Rhizoma	4.5
草烏	Aconiti ciliare Tuber	3

Dried herbs above were decocted in boiled water. 120cc tid, 28days.

2) 생활지도

눈과 손의 집중을 요하는 일에 몰두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벼운 운동으로 신체 활력을 높이고 환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11. 치료기간 및 경과

1) 기간 : 2019년 5월22일-6월19일

2) 경과 (Figure 1 참고)

(1) 초진일 : DLQI 24점, VAS 8점.

(2) 7일 후 재진 (回逆湯 복용 7일)

① DLQI 11점, VAS 4점.

② 피부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됨. 아직 가려움증은 있어 무의식적으로 긁지만 병변 영역이 줄어들음.

(3) 7일 후 재진 (回逆湯 복용 14일)

① DLQI 5점, VAS 1점.

② 병변 부위 영역이 더 줄어들고 건조감이 덜해짐.

(4) 14일 후 재진 (回逆湯 복용 28일)

증상이 없어 치료를 종결함. DLQI 0점, VAS 0점.

(5) 복약 종료 60일 후 재진

현재까지 손 부위 각질화, 진물, 갈라짐 증상 나타나지 않았음. 여름인데도 증상이 없어서 상당히 만족함. 이외에도 감기 끝물에 항상 치통이 동반되는 축농증과 전정신경염으로 인한 어지러움으로 고생했으나 현재까지 불편한 증상 나타나지 않음.

치료 과정에서 확인한 DLQI와 VAS의 변화는 Figure1과 같다. 전체 치료경과에 대한 서사적 도식 표는 Figure 2와 같다.



Figure 1. Changes of DLQI and 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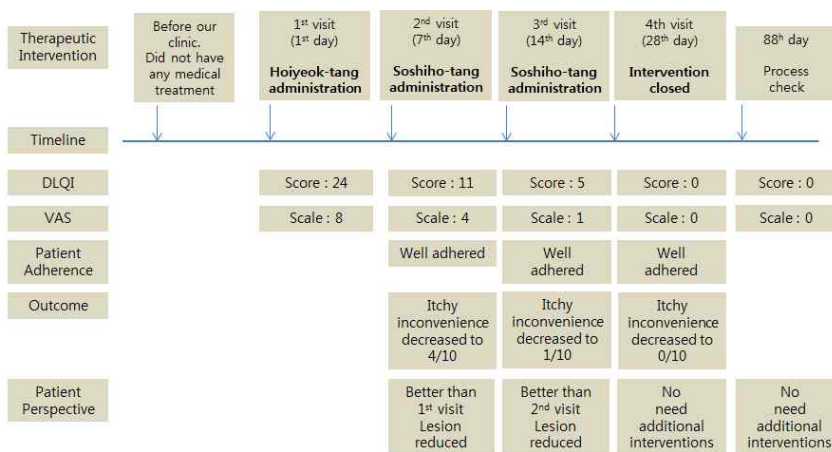


Figure 2. Timeline analysis of this case. This figure's category such as Therapeutic intervention, Timeline, Disease status (LCQ, VAS), Patient adherence, Outcome and Patient perspective follow the CARE guideline.



Figure 3. Pictures of clinical symptom progress

고찰

한포진은 손과 발 부위에 수포를 형성하고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재발성 습진성 피부질환¹⁴⁾으로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진 원인은 없으며 여름철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땀이 분비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dyshidrosis’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땀샘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며¹⁵⁾, 정신적 스트레스나 음식, 접촉성 물질 등과의 상관성이 보고되고 있다¹⁶⁾.

초기에는 맑은 장액으로 차 있는 잔 수포들이 손가락 측면, 손바닥, 발바닥에서 급격히 생겨나 심한 소양감을 유발 한다¹⁴⁾. 수포들은 무리지어 합쳐져 대수포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점차 건조되어 증상이 잦아들기도 하지만 증상이 더욱 만성화 될 경우 농포가 터지면서 가피가 형성되고 인설이 생긴다¹⁵⁾. 가피는 균열되고 아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과각화성 병변을 형성하기도 한다¹⁴⁾.

서양의학에서는 광선치료 요법인 PUVA 요법, zinc cream 도포 등의 치료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닌 스테로이드제로 치료하고 있다¹⁶⁾. 그러나 스테로이드제의 사용은 피부위축, 홍반, 피부염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재발성 질환인 한포진이 만성화 되는 경우 장기적인 사용에는 부적절하다⁸⁾.

한의학에서의 한포진은 『醫宗金鑑·外科心法要訣足部』⁵⁾에서 “田螺皰, 在足掌生, 裏濕外寒蒸鬱成, 豆粒黃皰悶脹硬, 破津臭水腫爛疼.” 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濕熱纏積,

陰虛內熱, 心脾兩虛, 血熱 등으로 변증하여 清熱利濕解毒, 健脾除濕利水, 滋陰清熱, 補益心脾, 清熱涼血 등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汗疱疹에 대한 기존의 한의학적 연구로 補中益氣湯 엑스제¹⁷⁾와 加味黃連解毒湯 증류액을 외용제로 활용⁷⁾하였고, 清肌散加減¹⁸⁾과 침 치료 병행 연구, 茯苓甘草湯 및 침 치료 병행 연구¹⁸⁾가 있었다. 단일처방 연구로는 小青龍湯을 처방한 치험례⁴⁾가 있었으며,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동반한 만성 한포진 한방치료에 대한 보고¹⁴⁾가 있었다. 한포진 치료에 활용된 처방으로 小青龍湯, 茯苓甘草湯, 藿香正氣散, 清肌散加減, 黃芪芍藥桂枝苦酒湯 등이 있었으나 回逆湯을 투여한 증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回逆湯을 상한 후 궤증 치료에 사용한 연구²⁰⁾와 과민성 방광에 투여한 증례²¹⁾, 복합동통증후군 환자 치료에 활용한 연구²²⁾가 있으나 피부질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증례 환자는 손바닥과 엄지 검지 사이 부위 각질화로 인한 인설과 갈라짐으로 인한 진물로 심한 불편을 겪었고 여름철이면 더욱 증상이 심해져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 한포진 질환의 원인을 기존 팔강변증을 통해 진단하는 방식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손 부위 피부질환의 양상을 『傷寒論』 조문 내 글자의 한자 어원학적 의미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진단의 근거로 삼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 宋代 교정의서국의 교정을 거치기 이전의 판본인 康平本 『傷寒論』의 서지학적 고찰²³⁾로 저작시기와 저자 의도, 글자의

한자 어원학적 의미 분석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⁹⁻¹¹⁾. 저작시기의 글자 형태와 의미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해당 시대 쓰인 글자의 병리적 의미를 유추하고 규정하는 기본적인 중요한 작업이다. 서지학적 고찰에 의하면 『傷寒論』이 기존에 後漢시대의 저작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그 최초 저작시기를 戰國시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宋代 교정의서국의 교정을 거치지 않은 판본인 康平本 『傷寒論』²⁴⁾에서는 15·14·13 字行이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으며 각 字行에 쓰인 언어 용례와 서술방식 등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康平本 『傷寒論』의 서지학적 고찰 연구²³⁾에 따르면 14·13字注는 15字注와 달리 그 설명 방식에 있어 부분적으로 『黃帝內經』의 이론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보다 이전 시기에 쓰인 15字注는 『黃帝內經』의 이론방식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가짐을 주장하고 있다¹⁰⁾. 또한 각 時代마다 의서에 활용된 서체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전국시대에 주로 활용된 서체는 大篆과 金文이며 후한시대에 활용된 서체는 小篆과 說文解字로 이에 따른 문자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傷寒論』 최초 저작본인 康平本 『傷寒論』 15字注 글자의 어원학(etymology)적 분석은 『傷寒論』 의미해석에 있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傷寒論』 저작 시대 어원 분석을 통한 厥, 霍亂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厥의 해석

『內經』에서 厥의 개념은 暴死爲闕로 갑

자기 의식을 잃어 人事不省이 되는 것, 손발이 차가워지는 현상을 설명한 四肢逆冷, 手足冷, 四肢不溫 등의 내용, 氣血逆亂 혹은 濁氣가 上逆하여 病이 된 것 등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²⁵⁾. 『傷寒論』에서 厥 및 厥陰病에 대한 연구 역시 『內經』에서 제시된 厥 개념 및 이론체계 위에 해석되어왔다¹⁰⁾. 그러나 이는 14字注에서 나타난 厥의 개념이므로 저작 시기를 달리하는 15字注의 厥 개념은 해당 시기의 글자의 어원을 통해 다시 규정될 필요가 있다¹⁰⁾.

『康平傷寒論』에서의 厥의 字形은 ‘擘’일 가능성이 큰데, 중국 고문자학자 곽말약(郭沫若, 1892~1978)에 의하면 ‘擘’의 金文 형태는 가로로 누워있는 도지개를 뜻한다고 하였다. 도지개는 활을 만들 때 활대에 대고 손발로 당기고 밀어 활이 굴곡지게 하고 활시위에 장력이 팽팽하게 가해지도록 하는 도구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발 및 흉곽에 힘을 주는 자세가 만들어 진다¹⁰⁾. ‘擘’의 金文 형태를 토대로 『傷寒論』에서 厥의 의미를 추정하면 手, 足과 연관되어 이해할 수 있으며 도지개를 굴곡지게 하는 동작처럼 손발 및 흉곽에 힘을 잔뜩 주는 자세를 만드는 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厥자의 한자 어원 분석에 의하면 ‘厶(기슴 엄)의 의미부이고 歟(그 쥘)이 소리부로 큰 바윗덩어리(厶)를 뽑아냄을 말한다.’고 하여 팔과 가슴에 힘이 들어가는 행위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2. 霍亂의 해석

일반적으로 『內經』, 『東醫壽世保元』,

『東醫寶鑑』과 『傷寒論』 13자주에서의 霍亂은 토하고 설사하는 증상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傷寒論』 해석 대상은 15字注로 霍亂의 의미에 대해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金文에서 ‘霍’은 雨(비 우)와 隹(새 추)로 구성된 글자로 여러 새가 떼 지어 나는 모습을 나타내며 ‘亂’은 두 손으로 영킨 실을 푸는 모습으로 손을 설명하는 爪와 又가 위에 있고 아래쪽에 실패와 纟(실 요)로 구성되어 있다²⁶⁾. 霍亂은 빗방울과 새 깃털이 어지럽게 얽혀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임상적으로는 비문증, 시력 저하 등 눈과 관련된 병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고문자학적 해석을 토대로 厥陰病 霍亂의 의미를 가정해보면 손, 발, 체간부에 힘이 집중되는 환경(厥)에서 눈과 연관된 기타 증상(霍亂)들이 동반됨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환자의 병적 정황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厥은 太陽病의 大의 개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작업 반경과 집중된 형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본 증례의 환자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들고 집중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연필을 힘주어 잡는 부위에 한포진 증상이 주로 발생되었다. 기타 증상으로 전정신경염이 발생하여 서있기 힘들 정도의 어지러움증을 경험하였다. 시력의 과사용, 손발의 정교한 움직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제반 증상들은 厥, 霍亂, 手足厥 등을 고대 한자 어원을 통해 의미를 분석한 기존 연구¹⁰⁾의 개념과도 부합된다.

康平本 『傷寒論』에서 手足厥이 등장하는 조문은 辨 少陰病 317조 通脈回逆湯, 辨 厥陰病 351조 當歸回逆湯, 辨 厥陰病 霍亂 388조 回逆湯의 세 조문이 있다²⁴⁾. 351조 當歸回逆湯이 활용된 증례 연구²⁷⁾에 의하면 자동차 회사 생산직 업무로 손이 지속적으로 진동에 노출되면서 2차성 레이노 유사현상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손부위 집중적 사용의 행위가 手足厥로 규정될 수 있다는 가설은 손의 집중적 사용의 증가가 레이노 유사질환을 유발했다고 보고한 해당 연구²⁷⁾와 그 의미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눈과 손의 집중을 요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한포진 환자를 厥陰病 霍亂 手足厥의 문제로 진단하고 回逆湯을 투여하여 유효한 결과를 얻었다. 증례의 주된 진단 근거인 手足厥의 한자 어원학적 의미가 손과 발에 특화되어 발생하는 한포진, 레이노 현상 등 질환의 특성과 연결되므로, 향후 추가적인 증례 연구를 통해 『傷寒論』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의 병리적 의미를 명확히 규정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증례는 단 1례로 확인된 결과이므로 다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적인 추적관찰을 통한 임상분석 연구를 진행하여 手足厥과 한포진 증상의 연관 관계를 입증하는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포진 질환의 기존 연구에서는 리커트 척도와 Vas를 치료 평가도구로 활용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⁶⁾. 본 연구에서는 피부 질환에 특화된 평가도구인 DLQI¹²⁾를 사용

하여 환자가 생활 전반에서 겪는 불편함의 정도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질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진단의 측면에서도 단순히 한포진 질환에 모 처방이 유효함을 증명한 연구가 아니라 환자의 삶 속에서 반복된 문제 행위가 질환으로 이어진 과정을 파악하여 저작 시기의 한자 어원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의미와 진단 근거를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한포진은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의 질환은 아니지만 손, 발 등 노출된 부위이자 사용이 잦은 신체 부위에 발생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확연히 떨어뜨리는 질환이다. 또한 그 치료에 있어서 스테로이드제 등의 장기적 사용은 기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고, 치료제 사용을 중단했을 때 재발과 증상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치료에 있어서 부적절한 측면이 상당하다¹⁴⁾. 이와 달리 본 증례의 경우에는 단일처방의 한약 복용과 증상을 유발, 악화시키는 행위를 조절하게 함으로써 단기간에 증상의 상당한 개선을 보였고 이후에도 개선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발성 습진 질환인 한포진 치료에 있어 변병진단을 통한 『傷寒論』 처방 치료의 연구적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결 론

손부위 한포진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게 傷寒論 辨病診斷體系에 근거하여 厥陰病 霍

亂으로 진단하고, 고문자적 해석을 바탕으로 388조문 回逆湯을 28일간 투여하여 호전된 증례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본 증례에서는 환자를 厥陰病 霍亂 388조문으로 진단하여 2019년 5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28일 동안 回逆湯을 복용하도록 하였다. 복용 14일 후 손 부위 병변 영역이 줄어들면서 각질화, 진물, 소양감 등의 전반적인 증상이 개선되어 DQLI 24에서 11로 감소하였으며 Vas 8에서 4로 감소하였다. 복용 28일 후 소양감은 거의 사라지고 병변도 정상 피부와 비슷한 상태로 회복되어 DQLI 11에서 1로 Vas 4에서 1로 감소된 변화를 관찰하였다. 진료 종료 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지고 여름철이 되어도 재발하지 않았다. 이에 한포진 환자에게 回逆湯 투여가 치료적인 효과를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본 증례에서는 『傷寒論』 388條의 ‘수족厥’에 대한 고문자적인 해석으로 厥의 의미를 기존 한의학에서 말하는 거꾸로 치솟는 증상 혹은 쓰러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에 집중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병리적인 단어로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回逆湯을 투여하여 주소증의 호전을 보았다. 본 증례 환자의 호전경과를 고찰해 보았을 때 병변 부위인 手足과 반복된 행위 厥에 대한 임상적 진단 및 해석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References

1. KDA textbook editing board. Dermatology. Seoul. Publication ryo moon gak. 2008 : 51,166-7,189-90.
2. Kang WH. Atlas of skin disease. Seoul. Publication hanmiueihak. 2008 : 132.
3. Jung JY, Han KH. Common skin disease in korea. MD world publishing company. 1. 2009 : 123-8.
4. Lee SJ, Kim NG. A case report of dyshidrotic eczema treated by socheongryong-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6 ; 8(1) : 41-51.
5. Oh G. Euijonggeumgam. Seoul. Daesungmunhwasa. 1994 : 397-8.
6. Jeong JM, Oh YT, Kim KH, Lee MS, Song BY, Kim JU, Yook TH. An overview of korean medicine research for pompholyx - literature review on recently published studies in korea-.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18 ; 22(3) : 61-72.
7. Lim JH. A clinical study on effects of gamihwangryeonhaedok-tang distillate on dyshidrotic eczema patient. The journal of dongseo medicines. 2007 ; 32(2) : 45-51.
8. Lee SJ, Lim JE. A diagnostic system and clinical application based on <shanghanlun> six meridian patterns and provisions. Seoul. KMediACs publishing house. 2013.
9. Ryu HC, Lee SI. A case report of chronic cough treated by soshiho-tang based on shanghalun provisions.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6 ; 8(1) : 155-64.
10. Cho SH, Yoon HJ, Lee SJ. A conceptual study on shanghanlun jueyinbing : based on 2 cases treated by shanghanlun provisions.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7 ; 9(1) : 1-20.
11. Park JK, Lim EG. Research about application if shanghalun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to 2 cases treated by oreong-san.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8 ; 10(1) : 81-94.
12. Finaly AY, Khan GK. Dermatology life quality index(DLQI) : A simple practical measure for routine clinical use. Clin exp deramtol 1994 ; 19 : 210-6.
13. Lee SI. Comparison of shanghanlun. Seoul. KMediACs publishing house. 2015 : 229.
14. Kang DH, KIM JH, Lim HW, Kim JY, Kwon K. A case of chronic plantar pompholyx including steroids side effects.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11 ; 24(1) : 181-91.
15. Shin SH, Yun JM, Heo JE, Ko WS, Yoon HJ. A case study on steroid rebound phenomenon after steroids treatment for prompholyx. J korean med ophthamol otolaryngol Dermatol. 2014 ; 27(3) : 155-61.
16. Kim MJ, Choi YW, Choi HY, Myung KB. Comparison of local bath-puva with steroid treatment in palmoplantar pustular psoriasis and dyshidrotic eczema. Korean j Dermatol. 2000 ; 38(6) : 742-9.
17. Lim WK, Sun YJ, Kim CH, Kim HK. A clinical case study of dyshidrotic eczema.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03 ; 16(2) : 249-54.
18. Shim SH, Jeong DH, Kim JH, Choi JH, Park SY. A clinical study about the effect of chunggisangagam on a dyshidrotic eczema patient.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03 ; 16(3) : 268-73.
19. Jo SH, Jo EH, Park MC. Two cases of a dyshidrotic eczema improved with

- fulinggancao-tang.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13 ; 26(4) : 91-100.
20. Choi YK, Kang MS. A case rspeort of ge-yan-jiu & herbal medicine complex treatment on jue zheng caused by wang yang. Korean j. orient.Int. med. 2007 ; 28(1) : 187-92.
 21. Lee LC, Min JH. A case report of overactive bladder treated by gamchogungang-tang, hoiyeok-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3 ; 5(1) : 45-52.
 22. Kim HS, Bae YH, Kim HS, Suh CY, Kim NH,
 23. Yang KJ, Lee GB. A review of research on the effect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reatment to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s. The acupuncture. 2016 ; 33(4) : 137-148.
 24. Park KM, Choi SH. A comparative study of shanghanlun and huangdineijing by historical study of gangpyeong-shanghanlun. Korean medical classic association. 1995 ; 9(0) : 265-301.
 25. Gangpyeong shanhanlun. Seoul. KMediACs publishing house. 2013.
 26. Gwak JY, Lee YT. Literature review on the reverse.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0 ; 24(5) : 737-47.
 27. Ha YS. Etymology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3Publication. 2014 : 118.
 28. Jung SY, Kang SW, Jo HG. A case report of a patient with suspected secondary raynaud phenomenon managed with danggwisaeyeok-tang. J. int. korean med. 2018 ; 39(4) : 846-52.

Appendix 1. DLQI(Dermatology Life Quality Index)

<u>DERMATOLOGY LIFE QUALITY INDEX</u>		DLQI	
Hospital No:	Date:	Score:	
Name:			
Address:	Diagnosis:		
The aim of this questionnaire is to measure how much your skin problem has affected your life OVER THE LAST WEEK. Please tick <input type="checkbox"/> one box for each question.			
1.	Over the last week, how itchy, sore, painful or stinging has your skin been?	Very much <input type="checkbox"/> A lot <input type="checkbox"/> A little <input type="checkbox"/> Not at all <input type="checkbox"/>	
2.	Over the last week, how embarrassed or self conscious have you been because of your skin?	Very much <input type="checkbox"/> A lot <input type="checkbox"/> A little <input type="checkbox"/> Not at all <input type="checkbox"/>	
3.	Over the last week, how much has your skin interfered with you going shopping or looking after your home or garden ?	Very much <input type="checkbox"/> A lot <input type="checkbox"/> A little <input type="checkbox"/> Not at all <input type="checkbox"/>	Not relevant <input type="checkbox"/>
4.	Over the last week, how much has your skin influenced the clothes you wear?	Very much <input type="checkbox"/> A lot <input type="checkbox"/> A little <input type="checkbox"/> Not at all <input type="checkbox"/>	Not relevant <input type="checkbox"/>
5.	Over the last week, how much has your skin affected any social or leisure activities?	Very much <input type="checkbox"/> A lot <input type="checkbox"/> A little <input type="checkbox"/> Not at all <input type="checkbox"/>	Not relevant <input type="checkbox"/>
6.	Over the last week, how much has your skin made it difficult for you to do any sport ?	Very much <input type="checkbox"/> A lot <input type="checkbox"/> A little <input type="checkbox"/> Not at all <input type="checkbox"/>	Not relevant <input type="checkbox"/>
7.	Over the last week, has your skin prevented you from working or studying ?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Not relevant <input type="checkbox"/>
	If "No", over the last week how much has your skin been a problem at work or studying ?	A lot <input type="checkbox"/> A little <input type="checkbox"/> Not at all <input type="checkbox"/>	
8.	Over the last week, how much has your skin created problems with your partner or any of your close friends or relatives ?	Very much <input type="checkbox"/> A lot <input type="checkbox"/> A little <input type="checkbox"/> Not at all <input type="checkbox"/>	Not relevant <input type="checkbox"/>
9.	Over the last week, how much has your skin caused any sexual difficulties ?	Very much <input type="checkbox"/> A lot <input type="checkbox"/> A little <input type="checkbox"/> Not at all <input type="checkbox"/>	Not relevant <input type="checkbox"/>
10.	Over the last week, how much of a problem has the treatment for your skin been, for example by making your home messy, or by taking up time?	Very much <input type="checkbox"/> A lot <input type="checkbox"/> A little <input type="checkbox"/> Not at all <input type="checkbox"/>	Not relevant <input type="checkbox"/>

Please check you have answered EVERY question. Thank you.

©AY Finlay, GK Khan, April 1992 www.dermatology.org.uk, this must not be copi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authors.